

‘귀태정국’ 넘은 여야, 국정원 국조·NLL격돌 예고

(鬼胎)

홍익표 사퇴·김한길 유감 표명...국회 정상화 합의

민주당 ‘4대강 국조’ 요구도 쟁점 부상 가능성 높아

여야는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박정희 전 대통령 귀태(鬼胎)’ 발언으로 촉발된 대치 정국의 파고를 넘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이번 주부터 산적한 쟁점현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여의도 모처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새

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사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鬼胎)의역하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의 후손’으로 비난하면서 촉발됐다.

새누리당은 1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홍 의원의 사과 및 원내대변인직 사퇴, 민주당 김한길 대

표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12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원내대변인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으며 김한길 대표는 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의 뜻을 김관영 당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위해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열람위원 10명이 상견례를 가진 뒤 곧바로 국가기록원을 방문, 대화록 예비열람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 있다.

당장 양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특위위원 선정 문제를 놓고 경쟁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특위위원 선정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중인 채택 문제는 물론 국정조사의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열람 후 공개할 내용, 대화록 해석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했다는 지도 등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경제공동체구상’ 문서에 포함됐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의 사본과 정상회담 직후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했다는 지도의 사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했다는 지도의 사본 등을 공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이계 달려라...야당 공세 막으려 고민 깊어지는 새누리

‘4대강 감사 대응’ 관련 계파갈등 극복 어려움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때 야당의 공세를 막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지난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대운하’ 감사 결과 발표로 고개를 들고 있는 당내 계파 갈등도 극복해야 할 처지다.

새누리당은 일단 대야 공세에서 강약조절을 시도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후 국회 일정 전면 중단과 윤리위 제소 등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기화할수록 결국에는 여권에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14일 “어차피 길게 가면 여당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귀태 발언’도 여기에만 국한해서 해야지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적전분열을 막아야 할 상황이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하자 ‘범 친이계(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친이계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등 간단치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의 한 의원은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결집하는 마당에 청와대의 스태프가 당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정부측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정책적 판단을 갖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화합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당 지도부는 주말 할수록 결국에는 여권에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당내 ‘4대강 사업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친이계인 강석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사업 전반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친이계를 달래기 위한 일종의 ‘배려’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책 읽는 의원들 신학용·황우여·이용섭 등 여야 30여명 참여 ‘열광’

여야 국회의원들이 빽빽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책 읽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위원장이 만든 이 모임은 결성한 지 두 달 만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김세연 유승우 강은희 의원, 민주당 이용섭 최재천 김재윤 도종환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인기모임’이 됐다.

신학용 위원장은 14일 “요즘 다들 책을 너무 안 읽는데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책 읽는 모습을 보이면 독서 문화도 널리 전파되고 불행인 출판업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모임 결성 계기를 설명했다.

지난 7월 모임에는 언론인 출신 소설가 김훈이 초청받아 ‘작가로서 본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강연하고 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책 읽는 모임’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 모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EBS 장학퀴즈’ 프로그램으로부터 섭외를 받아 조만간 출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했다는 지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고비마다 ‘막말폭탄’

잇단 돌출발언 국면전환 기회 날려...여당에 반격 빌미 제공 ‘한숨’

민주당이 중요 국면마다 당 관계자들의 돌출 발언으로 이른바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당 처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계기로 수세적 국면에서 차츰 벗어나 공세적인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지만 잇따른 돌출 발언으로 여당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鬼胎)’로 지칭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귀태의 후손’이라며 “유신 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언 때문에 홍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퇴했고 당 대표는 유감을 표명해야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일 광주에서

개최한 당원보고대회에서 “선거 원천투표투쟁이 제기될 수도 있다”(임내현 의원은) 주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미친 x” 언급(신경민 최고위원) 등 위험수위를 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자제령’까지 내렸으나 홍 전 대변인의 ‘귀태’ 발언으로 ‘막말 논란’은 재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도

팝캐스트 ‘나는 꿈수다’의 멤버 출신으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한 김용민 후보의 ‘막말·저질 발언’ 파문이 큰 악재로 작용해 다 잡았던 총선승리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김광진 의원의 ‘막말’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이명박 대통령의 ‘급사(急死)를 언급한 글을 리트윗한 데 이어 “다음에 술 먹을 때 체격과 수갑 폭행겨오길, 간호사복하고 교복도”, “00샘 운동쯤 했죠? 난 몸 좋은 사람 좋아하니까” 등 변태적인 성(性)행위를 연상시키는 트위터 글을 직접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부지리 안철수?

국정원·NLL·귀태발언 공방 속 반사이익 찾기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 ‘귀태(鬼胎) 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의 틈에서 반사이익 찾기에 나서고 있다.

여야간 공방을 ‘소모적 논쟁’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을 담아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 측은 14일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자체가 안 의원에겐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세력을 쌓아나갈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 의원의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방송과 가진 전화인터뷰

에서 NLL 관련 공방에 대해 “국민의 민생 문제나 경제민주화 등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는 것이 너무나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대 정당 이외의 모든 국민이 소외되고 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의원이 지난 6일 창원 지역 세미나에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서 국가적 위기는 점점 더 깊어진다”며 “정치주도 세력의 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0만원 / 분양가 5억750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 하나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2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지상3층~4층 영화관 (인정확정)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지상1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4층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